

# 새해 눈길 끄는 불교계 문화재 사업은?

경관·사지·금석문·벽화 등 다양...불교문화 중요성 알릴 기회

지난해 석굴암과 대장경 훼손 등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보이는 가운데 불교계가 새해 다양한 사찰문화재 관련 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끈다.

### 전국 사찰 경관 조사 시작

지난 2002년부터 전국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연구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3월부터 목판 분야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를 시작한다. 3개년 사업 중 첫해인 올해에는 인천,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 50개 사찰의 1만 79점이 조사된다. 이번 조사사업에서는 해인사 대장경판의 최대 규모인 송광사 화엄전 등이 포함됐다. 2015년에는 부산·울산·경남·강원 지역 사찰 24곳, 2016년에는 서울·대구·경북 지역 사찰 36곳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관 소장처로 알려진 곳은 110여 사찰로 2만 7350여점에 달한다. 불교문화재 연구소는 각 사찰이 소장하는 경관판본을 분류하고 간행시기 및 각수 등 기록도 함께 조사한다. 디지털 촬영을 함께 진행해 지역, 사찰, 판본, 시대별 통계작업도 실시

할 계획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와 함께 10월 경 2010년부터 진행 중인 폐사지 조사사업 중 충남·충북·대전지역의 사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3월 경 소장문화재 현황 보고서를 내놓으며 2013년 시작한 전국 폐사지 시·발굴 사업 2년차 사업에 들어간다.

### 금석문 탁본 자료 수집 본격 실시

불교중앙박물관은 올해 전국에 산재한 금석문을 탁본을 떠 원형을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지난해 문화재청의 용역을 받아 시작한 금석문 자료 집대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금석문 일체를 탁본으로 남기는 것으로 조선 세종, 일제강점기 이후 처음이다. 1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문화재위원인 홍선스님(前 불교중앙박물관장)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목록화 조사가 완료됐으며, 올해에는 경상북도의 금석문들에 대한 탁본, 사진, 영상 촬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단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는 사지조사사업. 연구소는 매년 조사결과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찰 벽화 조사사업 회향

성보문화재연구원 2006년부터 진행해온 사찰 벽화 조사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회향된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올해까지 총 160개 사찰건축물에서 벽화 5200여점을 조사해 63점의 벽화가 보물로 지정되는 등 그동안 건물 일부로 여겨온 벽화를 중요 문화재로 인식하게 된 성과를 냈다. 성보문

화재연구원은 2014년 야외 의식용 불화인 패불과 관련된 기록, 유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패불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거대한 크기로 인해 심층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여러 불화 유형 중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패불의 총체적인 면모를 본격적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다시 세상에 모습 드러낸 ‘직지’



1월 22일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직지복원판들.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2011년부터 진행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1월 22일 청주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에서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복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복원을 진행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인 임인호 금속활자장과 황정하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직지 금속활자판은 하권 30장~39장과 프랑스에도 남아있지 않은

하권 1장, 목판본만 있는 상권 1장~6장(39장까지는 미복원) 등이다.

금속활자판으로 찍어낸 직지 인쇄본도 함께 공개됐다. 황정하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금속활자본 진본으로도 남아있지 않은 직지까지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고인쇄박물관은 2015년까지 복원하여 상·하권을 모두 엮어 한 권으로 인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혜문 스님,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주장

문화재재단지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1월 20일 일본에서 도난돼 국내에 반입된 신라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혜문 스님은 “부석사 불상과 달리 약탈에 대한 증거가 없고, 도난 당한 사실이 분명한 동조여래입상은 반환해야 한다. 불상 때문에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다른 문화재 환수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조여래입상’은



동조여래입상

소에 보관 중이다. 노덕현 기자

부석사 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과 함께 한국에 반입됐으나 부석사 불상과 달리 원 소장처의 기록이 있지 않다. 현재 ‘불상 반환 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석사 불상과 함께 국립문화재연구

##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3월 3일부터 총 16주간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불교학술원 전용 강의실에서 불교한문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역경인력 양성 및 불교 연구자의 한문 해독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한문아카데미는 월요일에 ‘원각경’(혜거 스님/금강선원장), 화요일에 ‘초서’(양진석/서

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수요일에 ‘조론’(박해당/한림대 태동고전연구), 목요일에 ‘고문진보’(이상현/한국고전번역원), 금요일에 1학년 ‘논어·대학’(공근식/한국고전번역원), 2학년 ‘맹자·중용’(최병준/고려대 한자한문연구원) 등 강좌가 실시된다. 수강료는 60만원(대학 및 대학원생 42만원)이며, 접수기간은 2월 6일까지이다. (02)6713-5154 노덕현 기자

## 1200년 전 사찰 모습 담은 국보급 암각화 훼손 위기

### 경주 표암(瓢巖) 마애암각화 방치에 학계 “당국 관심음”

통일신라 사찰 모습이 기록된 국보급 마애암각화가 방치돼 풍화로 인한 심각한 훼손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한다.

표암 마애암각화는 전체 크기 가로 1.5m, 세로 1m로, 높이 2.3m, 가로 2m 바위에 음각(각아내기 기법)으로 새겨져 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절의 입구인 산문(山門), 당간지주(幢竿支柱), 명문 12자 ‘天寶二年(?) 月夫今(今) 子 上 世 也 (?)’, 삼층 목탑, 불전(佛殿), 승상(僧像)이 차례로 새겨져 있다.

표암은 화백회의를 통해 신라 건국이 의결된 역사적 장소로 경주 이씨 혈맥의 근원이다. 표암이란 ‘박바위’ ‘맑은바위’를 뜻하는데, 신라 6촌 가운데 달천 양산촌의 시조 이알평이 이 바위에 내려와 세상을 밝게 하였다 하여 표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경주 이씨 문중 중 표암 승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현불 스님은 “2011년 발견 이후 수차례 학술대회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주목했지만 방치된 상태”라며 “표면 풍화로 인해 훼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 화백회의로 신라 건국 의결된 장소

### 경덕왕 후비 만월부인이 사찰 암각 불교 조각사·금석학 연구 자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재 고려대 교수는 “명문을 풀이해보면 천보 2년(743년) 경덕왕의 후비인 만월부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 부처님께 기원하며 새긴 것”이라며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암각화가 불당과 탑이 있는 사찰에서 만월부인이 당번을 봉안하면서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담은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암각 중 불전(佛殿)은 불교 주요행사 때 당간지주에 내건 깃발로 암각화로는 국내 최초로 발견된 것”이라며 “불교 조각사와 사회사, 금석학 연구의 자료로 평가받는 만큼 보존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표암 마애암각화. 국내 유일한 불전 암각이 있는 회귀 암각화이다.

홍광표 교수는 “표암 암각화는 통일신라시대 사찰 경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며 “탑과 금당이 사찰의 중심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비등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당탑의 중요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암각화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불전은 중요행사에 사찰에 게양해 불보살의 위신력을 보이는 장엄물이지만

오늘날 그 존재가 잊혀 왔다”며 “표암 암각화가 발견되고 나서 사실상 우리나라 사찰에 불전이 실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 관장은 “특히 사찰에서 중요한 행사 때 당간지주에 내걸었던 깃발인 불전이 국내 최초로 발견돼 국보급 자료로 평가된다”며 “관련 당국이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2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4년 2월 19일(음력 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묘산, 수암, 일산, 귀암, 경암, 덕우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 343-2267~8700



## (사단법인) 영 남 범 음 범 패 연구 보 존 회

##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